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8.27)

1. 백색국가 제외 절차 진행 관련

□ [일본 정부 동향]

- 세코(世耕)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과 관련, “엄숙히 운용해 나가겠다” 고 함으로써, 기존의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¹⁾
- o 세코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으며, (한국 정부에 대한) 대항 조치도 아니다” 고 하였음.²⁾

2. 지소미아(GISOMIA) 종료 관련

□ [한국 정부 동향]

-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재검토할 의향임을 밝힘.³⁾

□ [일본 정부 동향]⁴⁾

- (내각부) 스가(菅) 관방장관은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수출관리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서, 정부의 대응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
- o 또한 스가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가 현재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포함,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고 하면서 “일본으로서는 계속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촉구할 방침” 이라고 하였음.

* 한편 수출관리제도를 변경한 것과 관련, 관방장관이 “한국의 수출관리제도 및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변경하였으며, 우대조

1) 「ホワイト国韓国除外 世耕氏「粛々と運用」」 『産経新聞』(2019. 8. 27).

2) 「官房長官 GSOMIAと輸出管理は別次元 対応に変更ない」 『NHK NEWS WEB』(2019. 8. 27).

3) 「이낙연 "日 부당조치 원상회복하고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가능"」 『연합뉴스』(2019. 8. 27).

4) 각주 2와 출처 동일

치를 철회한 것이지 금수조치가 아니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함.⁵⁾

- (경제산업성) 세코 경제산업성 장관은 “수출관리의 운용 방침 변경은 방위 당국간의 군사정보에 관한 협정과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서, 두 가지를 연관짓는 한국 정부의 주장과 발언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고 하였음.

o 한편 경제산업성 장관은 7월 12일 실시한 수출관리강화 관련 과장급 회의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정리해 준다면 국장급 대화를 열 용의가 있다고 하였음.

- (외무성) 고노(河野) 외무성 장관 역시 “지소미아와 수출관리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 라고 발언함.

o 또한 외무성 장관은 강제징용 문제를 염두에 두고, “양국 간 가장 중요한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이라고 하면서, 한국 측의 대응을 요구함.

- (방위성) 이와야(岩屋) 방위성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제도의 문제와 안전보장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둘을 연관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발언함.

o 또한 방위성 장관은 “지소미아 협정은 11월 22일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정보 공유를 도모하고 싶다” 고 하였으며, “종료를 재고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것” 이라고도 하였음.

2.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일본 국토교통성 장관의 회담 관련⁶⁾

-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는 가운데, 일본의 이시이(石井) 국토교통성 장관은 8월 30일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5) 「韓国首相発言、官房長官が批判、協定破棄見直し示唆で。」 『日本経済新聞』 (2019. 8. 27).

6) 「韓国人旅行者が減少 石井国交相が韓国観光大臣と会談へ」 『NHK NEWS WEB』 (2019. 8. 27).

- 이시이 장관은 8월 30일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3개국 관광담당 장관의 회담에 맞추어 한국의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개별적으로 회담할 계획임을 발표함.

- 이시이 장관은 “한일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인적 교류는 양국의 상호이해의 기반이며, 관광교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고 하면서 관광 측면으로 한일 관계 악화의 영향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간 협력해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였음.

-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은 작년에 약 753만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수치임. 그러나 7월에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동월대비 약 7.6% 감소함.